



# “신규환자 감소시 2.5단계 연장 없을 것”

### 정부, 코로나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이번주내 결론 추석 이동량 줄이려 고속도로 통행 유료 전환 검토

정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강도와 관련된 결정을 이번 주 내에 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가 5일 남은 시점에서 환자 발생 추세를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하

루 100명대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주 말까지 5일간만 더 집중해서 거리두기에 힘써주신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거리두기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를 억제하며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노력이 한두 주 뒤에 결과로 나타나기에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이 제한되면서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요청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2.5단계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윤재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 수준에서 확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최근 서울에서 종교 법회·미사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데 대해서는 “서울시와 법회·미사 금지 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역학조사로 위험도를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점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는 장치다.

중대본은 “추석에 고향·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가능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백신 개발 과정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정부의 백신 제조 참여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약을 맺고 향후 백신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 “당정청, 코로나 위기 극복 ‘원팀’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원팀’ 정신을 되새기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국정운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여러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난 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 된 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도 최소화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외에 김태연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경에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만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최고위원단, 원내대표단 또는 상임위원장 등을 모셔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의원님들, 특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초선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잘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가계대출 잔액 948조 한달새 11조7000억 ↑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주주 투자에 나서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자금 조달의 마지막 수단인 신용대출이 지난달 사상 최대 폭으로 뛰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떨어지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생활자금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늘었고, 최근 전셋값이 뛰면서 전세대출 수요도 3조4000억원이나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영향으로 가계가 은행에서 벌린 전체 대출 규모도 한달 새 약 12조원이나 크게 불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으로, 사실상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695조9000억원)은 한달 사이 6조1000억원 불었다. 지난 3월(6조3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51조3000억원)의 경우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 “의사국시 추가접수, 국민 동의를 선행”

###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 “추가 기회 논의 필요성 적어”

정부는 9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47만9926명이 동의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



의사 국시... 응시생 6명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둘째날인 9일 서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가 응시생의 발열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인해 시험 첫날에 이어 이날도 6명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 가장 낮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국

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응시 거부’의 대생들의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예고 개탄”

###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

을 수 없다”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 상태”라며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도 조금만 더 견뎌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환절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해지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소확광** 소하지만 실하게 고하기

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3차]

신청대상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제주도내 소상공인  
신청기간 9월 9일(수)~9월 18일(금)  
모집인원 85개 업체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60만원 지원  
접수방법 방문 / 우편 / 홈페이지  
문의전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 758. 5710~1)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www.jejusc.kr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